

칼럼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피케티가 말하는 부(富)의 비밀

코로나19로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 하면서 투자 관련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도 잘 팔립니다. 다들 돈을 벌고 싶어하지만 정작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건 경쟁이 치열하여 답이 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두 돈을 벌고 싶어하기 에 돈을 버는 확실한 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엄청난 문헌을 조사해서 부자 되는 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은 170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0년 기간의 부(富)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사실 피케티는 부의 비밀에 관해 쓴 게 아니라 부가 불평등한 이유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 분석을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부의 비밀인 셈입니다. 이 책에서 부의 축적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을 가져야 합니다.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본수익률과 자본의 집중이 불평등의 원인이라 보았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역시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본은 기계처럼 생산

에 사용되는 생산자본을 말합니다. 토지로 인한 불평등을 주장한 헨리 조지는 토지가 불로소득의 원천이라 보았습니다. 반면 피케티는 생산자본, 토지자본을 모두 포함한 것을 자본이라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자본수익률은 2천년 동안 4~5% 사이에서 머물러 높은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저축을 예금자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산자본이나 토지자본을 갖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생산자본은 주식을 통해서 지분을 획득할 수 있으니 결국 주식, 부동산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을 잘 받아야 합니다.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은 19세기 유럽이 배경인데, 상속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기에는 한계가 있고 누군가에게 거액의 상속을 받는 게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대 유럽 소설에서 상속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소설 <제인 에어>에서 주인공은 모든 어려움을 깨끗하게 이겨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유산이었습니다. 소설 후반부에 숙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 받게 되면서 한쪽 팔과 눈을 다친 로체스터를 찾아 결혼을 하고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반전시킵니다.

실제로 당시 프랑스에서는 한 해 상속재산이 국민소득의 20%에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매년 360조원 정도는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 합니다. 이 비율이 1·2차 세계 대전 후 좀 낮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득 대비한 상속재산의 비중은 낮아집니다. 성공한 벤처 기업가나 대기업 CEO들의 연봉을 보면 상속재산 없어도 사람 하나 푹푹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혁명이나 전쟁 없이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상속의 비중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를 이루는 데 상속의 중요성은 여전한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상승률보다 높고, 국민소득에서 상속재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1900~1950년대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그 수치가 푹 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세금과 자본 손실을 공제한 자본수익률은 경

제성장률보다 낮아집니다. 1·2차 대전으로 자본이 대폭 파괴되었고 세율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자본 손실과 세금을 공제한 자본수익률은 1%로 경제성장률 2%보다 낮습니다.

프랑스에서 국민소득 대비 상속액의 비중이 19세기 20%에서 1·2차 대전 후에는 2%까지 낮아집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보유 재산의 손실을 크게 입었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동란을 거치면서 몰락한 부자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재산의 질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돈 1억원을 연 5% 이자로 200년 두면 1조 7천억원이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1억원 예치해 놓으면 후대가 1조 7천억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이 장기간 온전히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전쟁은 재산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량한 곳에 자산을 두어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면 몇 군데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피케티는 높은 자본수익률이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라 보았습니다.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본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속, 그리고 그 자본이 파괴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세 가지가 바로 '부(富)의 비밀' 3가지입니다.

社 說

6·15 20주년, 관계회복 계기 삼아야

최근 북한의 대남 파상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잇단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성토하며 남북이 맺은 합의 파기까지 언급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지난 5일 담화에서 남한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했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구체적 결기다. 이대로 가면 연락사무소 폐쇄를 신호탄으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금강산관광 폐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북한이 남측을 향해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자 해석이 분분하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지만, 무언가 한층 복잡한 셈법이 감춰져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김여정 담화 직후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 규정했고, 통일부도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의 일부 부정적 여론까지 감수하면서 신속히 내놓은 화답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다. 공교롭게도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맞춰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100만장을 북쪽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전단살포를 주도하는 탈북민단체는 전단 살포가 자신들의 사망과 의무라며 강행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전단살포를 막는다면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아췌든 정부는 적극적 설득을 통해 대북 전단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 사항이기도 하다. 나아가 오는 15일 도래하는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은 악화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남북 최고 지도자가 함께 발표한 최초의 선언이지 않는다. 남북 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로 푸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 당국이 긴밀한 대화로 이번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노력으로 바꾸는 것

숙명이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이나 수단으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뜻하는데 따라서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부모와 지식 간, 자신의 성별등 바로 이것이 숙명이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운명은 스스로

로 만들어 가는 것, 사람은 대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결국 나쁜 운명을 만든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이다. 운명은 용

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비겁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절실한 마음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자녀를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부모의 조력과 지식들의 마음으로 고뇌와 즐거움도 같이 한다면 자녀들의 체념된 운명이 활기찬 운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진 운명은 없다. 미래는 자신의 맘과 노력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주에 얽매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신은 단지 열심히 뛰는 자에게 응원해줄 뿐이다. 사주팔자가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나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노력해야만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넘어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것이다.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국종균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